

안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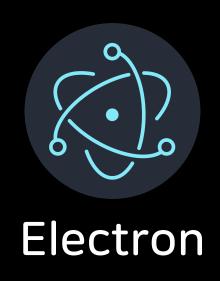
우승진

황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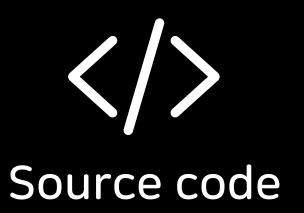


Feedback

매장 없이 공용 주방으로만 운영하는 업주분들은 POS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스크탑 앱 외에 모바일 앱도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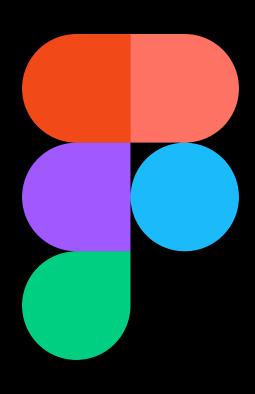
1인식당의 데스크탑 앱은 일렉트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개발 예정

일렉트론은 웹앱을 크로미움 엔진을 사용하여 데스크탑 앱으로 포팅시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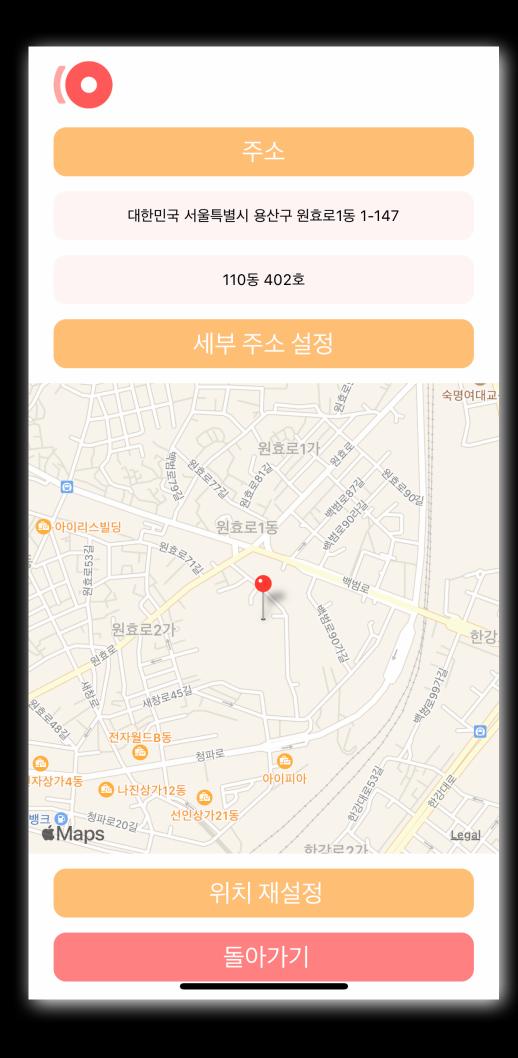
따라서 데스크탑 앱을 개발하면 동시에 웹으로도 배포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포스기가 없는 분들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통해 1인식당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반응형 코드로 작성해 해결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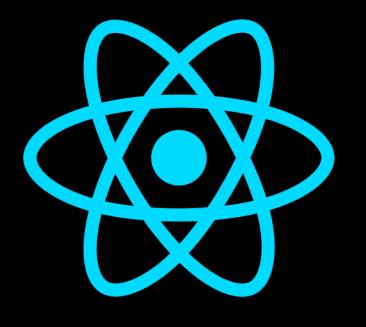


1인식당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코드로 데스크탑 앱과 웹앱을 동시에 배포한 대표적인 예로 Figma가 있음



Securestore 모듈을 이용해 로그인 또는 엑세스 토큰으로 인증 시 기존 기기의 앱에 있는 위치 정보 읽어와 표시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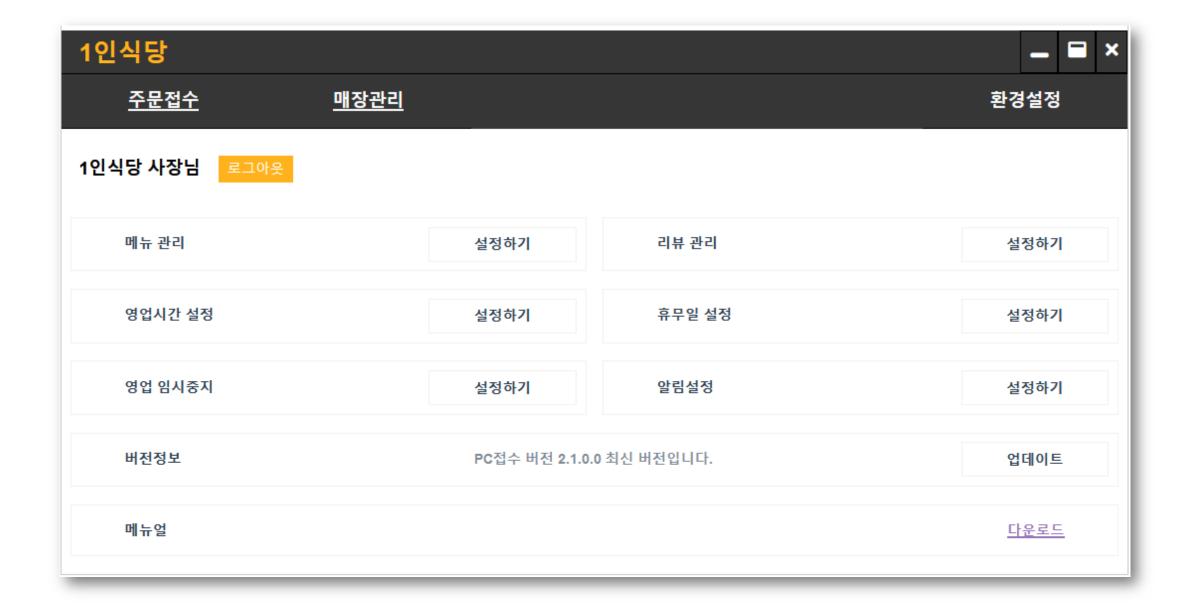
또한 위치를 재설정 할 경우, 위치 정보들이 Securestore에 업데이트 되어 매번 등록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유저의 위치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함



Trouble shooting

React native로 개발하는 것이 처음이라 각각의 컴포턴트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동작에 관해 이해도가 떨어져 렌더링을 실행할때 상태가 바뀌어 UseEffect 함수를 한번만 시도하지 않고 여러번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State및 Effect들이 중복해서 영향이 가지않게 적절히 나누어주고 여러 모듈들을 컴포넌트화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음식점 등록과 메뉴관리 탭 완성

음식점 등록을 위해서 배달료와 최소주문금액, 배달 가능 지역을 필수로 입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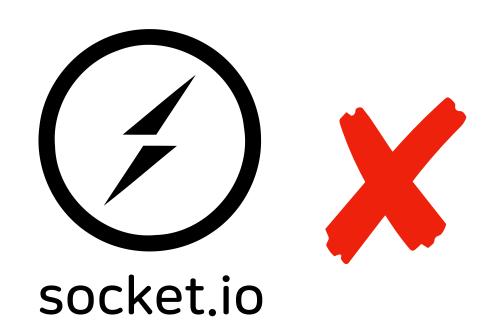
또한 영업시간이나 휴무일등의 요소도 부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함

메뉴 관리 탭에서는 메뉴에 대한 이미지, 가격등에 대한 요소를 필수 항목으로 입력하도록 함

이러한 정보들은 언제나 메뉴 관리탭에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만듦

업주가 등록한 메뉴를 주문자용 어플에서 확인 가능

API server





socket.io로 파티방 관련 API를 개발하다가 flexibility가 좋지않다는 문제점을 느낌

리서치를 해본 결과, socket.io는 웹소켓이 표준으로 자리 잡지않은 시절에 많이 사용하던 모듈임

그러나 웹소켓이 표준으로 자리잡은 이후로는 현대의 브라우저들은 웹소켓 프로토콜을 지원

따라서 현재는 RFC에 등록된 websocket표준에 맞춰 구현한 ws모듈을 많이 사용함. 사용결과 flexibility가 훨씬 좋음

socket.io로 구현했던 파티방 관련 기능들을 ws모듈로 현재 컨버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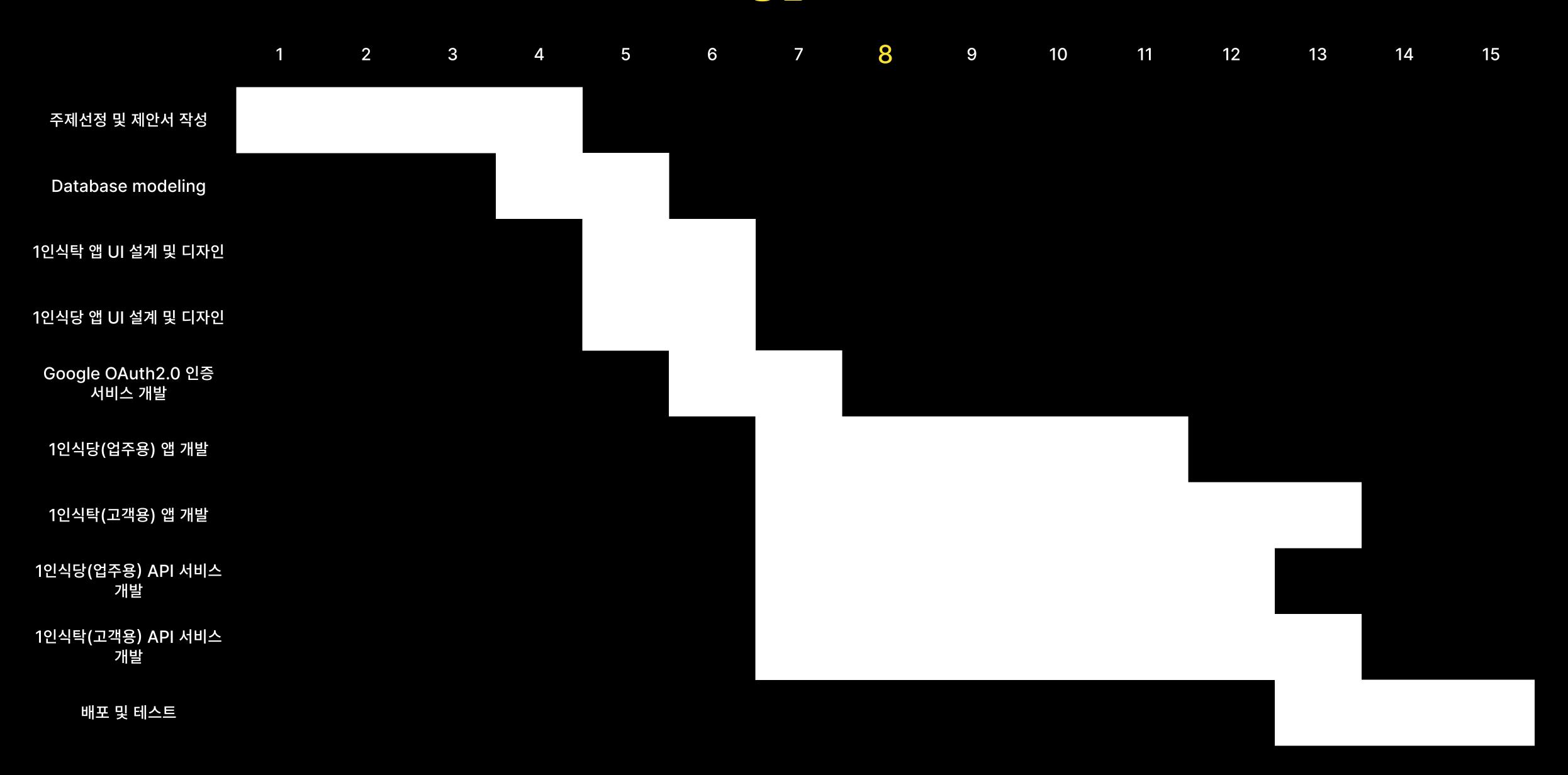


배고파 모드 기능에서 푸시알림을 보내기 위해 APNS(for iOS)와 GCM(for Android)으로 구현 중, 멘토님에게 FCM을 사용하라는 피드백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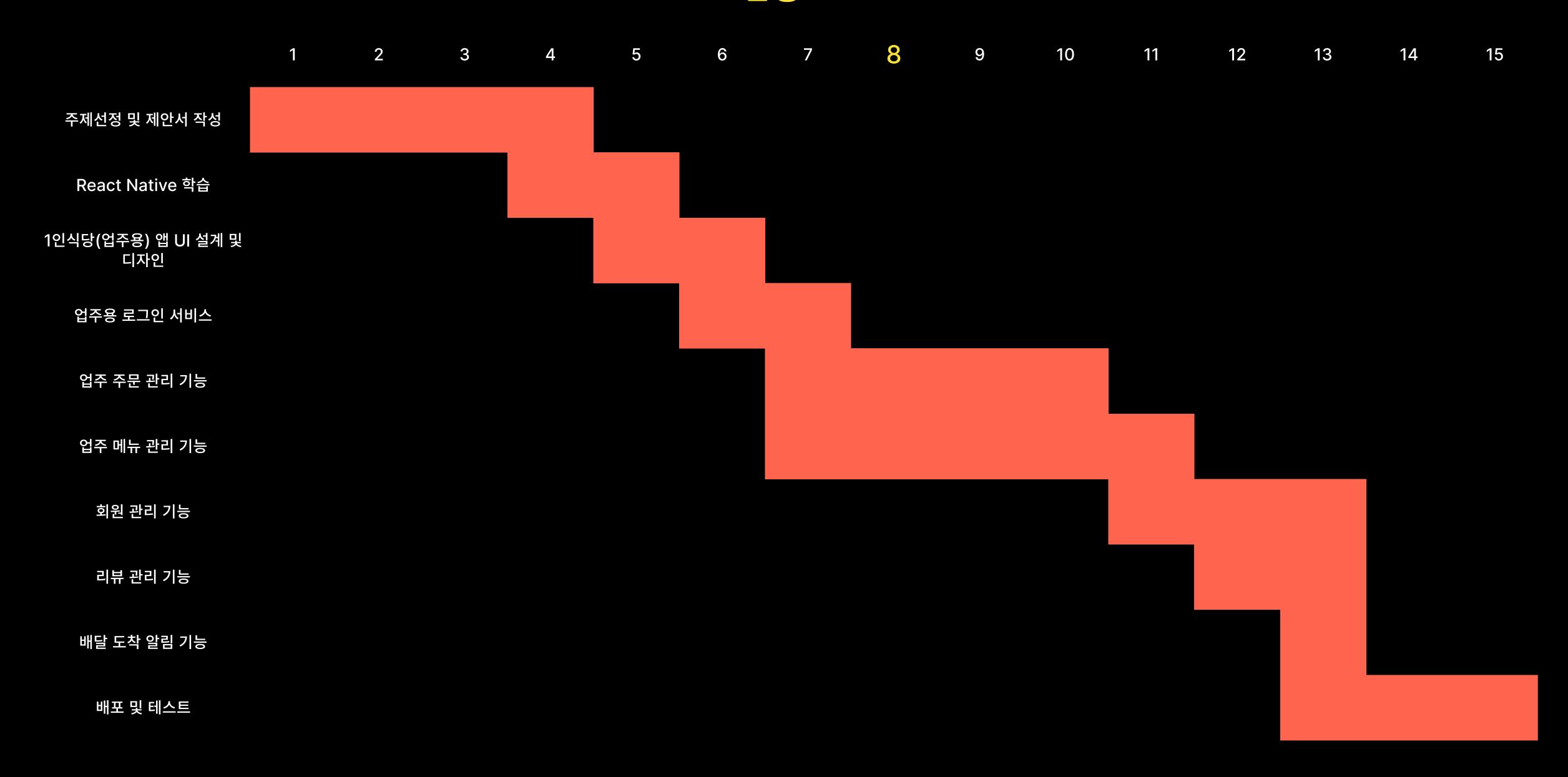
APNS와 GCM을 사용하면 각각의 모바일 플랫폼에 따라 푸시알림 서비스를 등록해야하는데 FCM을 사용하면 크로스플랫폼으로 구현 가능함

피드백을 반영해 FCM을 이용해 푸시알림을 구현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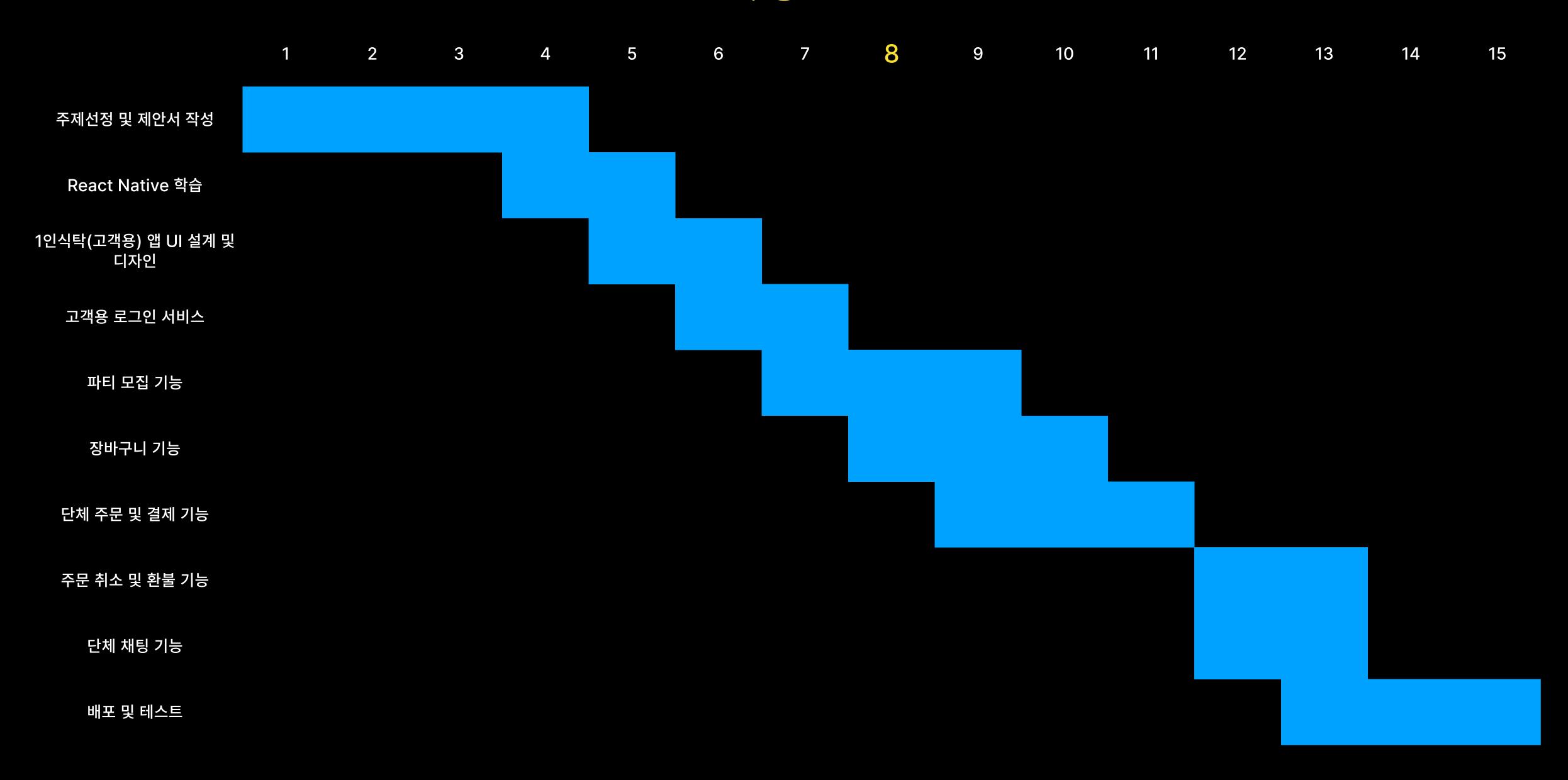
통합



안승재



우승진



황치훈

